

둘은 내해었고
 둘은 뉘해었고
 본대 내해다무론
 아즈늘 엇디허리있고

<처용가(處容歌)>

- ① 처용의 부인이 악귀를 쫓기 위해 부른 노래로 주술성의 무가이다.
- ② 신라 때 한역되어 전해오다 고려속요의 '처용가'로 이어진다.
- ③ 신라의 국제 교역이 활발했음으로 미루어 처용이 외국인이란 설도 있다.
- ④ 처용이 역신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12. ㉠과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문은?

생원 : 그러면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나?
 서방 : (㉠) 네에, 거 운고옥편(韻考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 형님, 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 부르게.
 서방 :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잡니까?
 생원 : (㉡)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논 임자가 아닌가?
 서방 : 하하, 그것 형님 잘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바리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래이 비호(飛虎) 같은데, 썬님의 전령(傳命)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 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져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하락>

- 봉산탈춤 6과장

- ① 한참을 생각하더니 ② 손뼉을 치면서
- ③ 바라보고 있었다는 듯이 ④ 될 대로 되라는 듯이

13. 다음 시에서 민족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중 거리가 먼 것은?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고 치고지고
 뉘집을 들어서면은 반겨 아니 맞으리

바람없는 밤을 꽃 그늘에 달이 오면
 술 익는 草堂마다 정이 더욱 익으리니
 나그네 저무는 날에도 마음 아니 바빠라.

-살구꽃 핀 마을(이호우)

- ① 향토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재가 쓰였다.
- ② 살구꽃, 꽃그늘, 초당 등은 우리에게 친근한 시어들이다.
- ③ 우리 민족에게 친근한 3음보 율격이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 ④ 따뜻한 인정 풍류를 느낄 수 있어서 정서적 동질감이 느껴진다.

14. (나)의 이임보가 (가)의 엄행수를 비판할 때, 이임보에게 들려줄 만한 시조는?

(가) 저 엄행수란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요구한 적이 없었지만, 그저 내가 늘 그 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네. 그의 손가락은 굵직 굵직하고, 그의 걸음새는 겁먹은 듯하였으며, 그가 조는 모습은 어리숙하고, 웃음소리는 꺾꺾대더구먼. 그의 살림살이도 바보 같았네. 흙으로 벽을 쌓고 벗짚으로 지붕을 덮어 구멍을 내었으니, 들어갈 때에는 새우등이 되었다가, 잠잘 때에는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 박고 자네. 아침 해가 뜨면 부석거리고 일어나, 발채(지개위에 엮는 소쿠리 모양의 접는 물건)를 메고 동네에 들어가 뒷간을 처날랐다네. 구월에 서리가 내리고, 시월에 살얼음이 얼어도, 뒷간의 남은 찌꺼기와 말뚝, 소똥, 집안 구석구석에서 닭의 똥, 개똥, 거위똥,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의 참새똥 등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레질해 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굶어 모아도 누가 양보심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삽을 들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꺼불꺼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 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그는 화려한 외화(外華)도 힘쓰려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않지.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일세.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으며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이 없네 그려.- 박지원 <예덕선생전>

(나) 이임보는 현명한 사람을 미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여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배척하고 억누르는, 성격이 음험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입으로 꿀 같은 말을 하지만 뱃속에는 무서운 칼이 들어 있다 [口蜜腹劍].'라고 말했다.- <십팔사략>

- ① 가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마라
 것치 거문들 속조차 거믈소야
 아마도 것히고 속 검을슨 너뿐인가 하노라
- ② 굴벙이가 매미가 되어 날개가 돌아서 날아 올라
 높고도 높은 나무 위에서 우는 소리는 좋지마는
 그 위에 거미줄이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여라
- ③ 가마귀 디디는 곧애 백로야 가지마라
 희고 흰 길헤 검은 때 무칠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무티면 씨을 길히 업사리라
- ④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라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이시라.

16. 다음 지문에서 밑줄 부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하이퍼텍스트는 문서 중간 중간에 특정 키워드를 두고 문자나 그래픽파일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만든 문서다. 문서의 중요한 키워드마다 다른 문서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 여러 개의 문서가 하나의 문서인 것처럼 보여 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CD롬 타이틀이나 CD롬 백과사전, 소프트웨어의 도움말파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이 하이퍼텍스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서를 제공하며 월드와이드웹에서 파란글자를 눌렀을 때 연관되는 하위정보를 볼 수 있게 한 것도 하이퍼텍스트 활용의 한 예다.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활용이 이뤄져 알려졌지만 하이퍼텍스트 기반기술의 발전사는 꽤 오래된 기술이다.

- ①
- ② 텍스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 ③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연결
- ④ 비순차적이면서 미디어와 통합적이다.

17. 다음 지문의 앞뒤로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력위조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학력을 속인 사람들이 져야 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학력을 위조했다는 것 자체는 '사기'에 해당한다. 문서를 위조해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 그들이 학력을 위조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위치에 있었을까. 결국 그들은 사회를 속여 상류층에 오른 것

이며, 그들의 출세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은 게 된다.

학력위조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근절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근원적인 대책이다. 학력위조의 원인으로 무엇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한국은 학벌사회다. '학벌=실력'이 아님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학벌=실력'이 된 지 오래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은 몇몇 소수 대학 출신이 사회의 중요 직책을 독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같이 차지하고 출세하려면 학벌이 있어야 한다. 너도나도 좋은 학벌을 원할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 2007.9.5.

- ① 학벌 사회의 폐단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제이다.
- ② 학벌중시 폐단에 대해 논할 수 있다.
- ③ 학벌사회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
- ④ 학력 위조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18. (가)와 (나)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 향료(香料)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머언 고가선(高架線) 위에 밤이 켜진다.
 -김광균<대생>

(나)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진 사잇길, 저 모래 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갹(坑) 속 같은 마을.
 꿀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하략>
 -박용래 <월훈(月暈)>

- ① (나)는 (가)에 비해 시각성을 더 강조하였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회화적 기법을 강화하였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비유적 방법으로 대상의 속성을 나타냈다.
- ④ (가) 와 (나) 모두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고 있다.

19. 다음 문장에서 국어 어법에 알맞은 것은?

- ① 지금 여러분이 태워야 할 것은 담배가 아니라 미래의 열정입니다.
- ②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하는 것은 조금도 강조할 필요가 없다.
- ③ 먹다 남은 쓰레기는 꼭 가지고 차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 ④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어

머니 때문이다.

20. 다음 시는 읽을 때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그 이유가 아닌 것은?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의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돌쳐 오르는 아침 날빛 이 빨간
은결을 도도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르도르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김영랑)

- ① 각운에 '네'를 반복하였다.
- ② 관념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1, 2행과 7,8행이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렸다.
- ④ 3음보를 4음보로 변환하여 독특한 구성을 보인다.